

아동과 신학적 개념형성 (Children and Their Theological Concepts)

Morman Wakefield *
번역 : 김 성 수

I. 서론

아동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놀라운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여러 가지의 정보와 경험으로부터 실재(實在)의 세계를 그려내고 구성하여야 한다. 출생시에 아동은 그저 주어지는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인 한 작은 피조물이며,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점점 성장하여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때 쯤이면 그는 놀랄만한 양의 지식을 축적할 뿐 아니라 또한 이와같이 축적된 지식들을 인지적인 과정(cognitive processes)을 통해서 가히 믿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자료은행(data bank)으로 조직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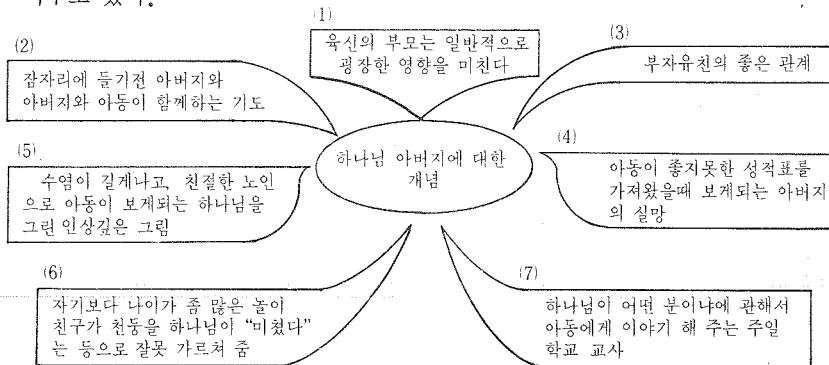
이와같은 여러가지 관념(images)이나 지각(percepts)들로부터 아동이 어떻게 종교적 개념(concepts)을 형성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자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기독교 교육자는 날마다 성장해가고 있는 아동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죄, 죽음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도록 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 때문에 교육자는 반드시 아동에게 있어서 개념 형성(concept formation)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자는 아동에게 있어서 왜 신학적인 개념이 잘못 형성되는가를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독교 가정의 부모나 교사들은 아동들이 정확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념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다. 즉, “대상이나 사물, 경험들을 분류하고 구별지울 수 있는 관념이나 표상”(an image or representation whereby objects, events, or experiences may be classified and distinguished)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제 근원 또는

* 노만 웨이커필드(Norman Wakefield, Ed. D.) 교수는 California주 Talbot Theological Seminary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다.

경험으로부터 얻게 된 무엇을 분석할 때에 모든 상황에 공통되는 어떤 특성을 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공통되는 속성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개념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개념형성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정보 또는 지식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아동의 하나님 개념의 개념이 형성되는 방법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여러가지의 경험을 통하여(1, 2, 3, 4),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표상을 통하여(5), 연장자나 교사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나 해석을 통해서(6, 7)아동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점차로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아동의 개념은 다음에 제시되는 여러가지의 요인들에 따라 결정적으로 잘못 형성될 수도 있고,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형성될 수도 있다.

2. 신학적인 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factors influencing theological concepts)

아동의 신학적 개념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영향력있는 제 요인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있게 형성된다. 같은 교회, 같은 주일학교, 똑같은 반에 다니고 있는 두 아동이라도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독교적인 훈련이라는 면에서 볼 때 다양한 배경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한 아동을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 아동은 이 방면에는 전혀 개념을 소유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 즉, “신학적 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What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theological concepts?)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1) 명확한 신학적인 개념은 아동기 후기까지는 발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아동초기의 인상(impressions)이나 의식(awareness)은 나중 신학적인 개념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에릭슨 Erikson은 지적하기를 아동은 그의 생의 첫 18개월 동안에 신뢰(trust)와 불신(mistrust)의 기본적인 감정이 발달된다고 지적하였다.¹⁾ 아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전에 아동은 이 믿는다(신뢰한다)에 대한 태도나 감정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기때부터 정서적으로 온화하고 신뢰할 만한 가정환경을 경험한 아동은 생에 대한 전전한 태도를 보다 더 잘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정(인상)을 가지며, 또한 생에 대한 질서감과 조화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 이와같은 감정(인상)은 무엇을 통한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내적인 감정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동의 이와같은 감정은 장차 그들이 하나님, 성경, 우주, 자아와 같은 것에 관한 경험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내적이며 불가시적인 요소들인 것이다.

2) 양친은 신학적인 개념의 근원에 영향을 주는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에릅 Erb은 지적하기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선(goodness)의 속성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선에서부터 유추를 통하여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안위하심(comfort)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위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²⁾ 기독교인 부모들은 아동 개개인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살아있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실재(reality of God)을 전달해 주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아동들에게 하나님의 다변적인 속성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생의 사전들을 해석해 주는 것이다.

양친의 역할이 중차대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1) 첫째로, 부모는 아동의 초기에 정의적인 관계의 질(the quality of affective realtionships)을 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아동초기의 이러한 관계는 나중 그 위에 개념이 형성되는 경험적인 구조(experiential structure)이다.

(2) 둘째, 부모는 아동에게 이 세계에 관해서 해석해 줄 수 있을뿐 아니라 지적으로 아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아동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거나, 성경이야기를 잘 선택해서 들려주고, 주를 찬양하며 아동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에 지으신 세

1)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3), p.247.

2) Alta Mae Erb, *Christian Nurture of Children* (Scottdale, Pa.: Herald, 1955) p.97.

계의 경이로움을 관찰함으로서 아동의 초기교훈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의 인상(impressions)들을 통해서, 어린 아동들은 공정적이고, 정확한 관념과 교훈을 가치롭게 공급받아 여기에서부터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부정하기도 하겠지만 아동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들의 부모들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서 주로 결정된다”고 그람스 Armin Grams는 말하고 있다.³⁾ 이와같이 부모들 또는 조부모들이 그들 자녀들의 영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좋은 예는 디모데 후서 1:5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바울(Paul)은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 훌륭한 신앙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리는 이를 진리의 실제적인 산 경험과 더불어 가르쳐 마음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아동이 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이 있다. 주일 학교교사는 노래나 합창 또는 성경이야기, 기도 및 이와 관계있는 학습활동들 가운데 구현되고 있는 기독교의 신학적인 개념들을 아동들에게 정규적으로 직면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거나 또는 교재의 실제적인 내용안에서던지 간에 아동들을 종종 잘못된 관념(ideas)이나 표상(images)을 가지게 한다. 한 예를 들면 한 조그만 꼬마애가 눈물이 글썽 글썽하며 소리치기를 “아, 어머니! 내가 너무도 놀라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뛰고 있습니다!”와 같은 관념이다.⁴⁾ 이와같이 각 교회의 아동들을 위한 교육기관내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질이 또한 신학적인 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3) 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아동의 지적인 발달(the child's intellectual development)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적인 발달이 점차적으로 개발되도록 인간에게 시간표(timetable)를 만들어 주신 것 같다. 피아제 Jean Piaget를 비롯한 여러사람들의 연구는 어린아동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수 있는 정신구조(mental structure)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유아는 아주 소수의 인상(impressions)들로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나가는 경험과 인상의 망(network)을 구축한다. 따라서 보다 급속한 지적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과도한 자극이 유익한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마치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처리해

3) Armin Grams, *Children and Their Parents* (Minneapolis: Denison, 1963), p. 77.

4) Johanna L. Klink, *Your Child and Religion* (Richmond, Va.: Knox, 1972), p. 116.

나가는 과정보다 더 급속하게 재료를 막 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린 아동들에게 너무나 많은 성경사실(지식)이나 “정도가 높은”개념(advanced concepts)으로서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아동편에서 볼 때는 그를 혼란과 왜곡됨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는 게리슨 Garrison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만약 교회가 품성훈련에 있어서 효과적이자면 교육심리학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학습원리를 따라 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⁵⁾

4) 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번째 요인은 아동의 언어발달 및 강화의 수준(the child's level of language development and enrichment)이다. 단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아동들에게 상징적인 기호(symbols)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으로서 아동은 표상(images)과 지각의 대상을 “다룰 수”있다. 이것은 아동이 객관적인 개념들을 일반화하고 이해할 수 있을때까지의 한 필요한 단계이다. 실제로, 촘스키 Chomsky는, 아동은 개념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필요한 문법적인 구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⁶⁾

아동의 환경에서 영적인 문제에 관한 대화가 결핍되어 있을 때, 이 영역에서의 아동의 발달은 저해되는 것이다. 많은 비기독교가정에서 아동들은 영적인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상이나 태도를 듣고 대한다. 이와같은 비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아동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또는 구원에 관계되는 성경적인 관념들의 적절하고 정확한 어휘를 갖고 주일학교에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3. 개념발달의 과정(the process of concept development)

컬리 Iris V. Cully는 저서 *교회의 아동(Children in the Church)*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하나님과 한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테두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만큼 생동적인 되었느냐는 것도 양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동기의 내적인 핵심은 하나님께서만 아실 뿐이다”고 했다.⁷⁾

기독교 교육자는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내적이고 초자연적

5) Karl C. Garrison, et al., *Educational Psyc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4), p.308.

6) Carol Chomsky, “Language Development After Age Six,” in *Readings in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ed. Celia Lavatelli and Faith Stendler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p.273.

7) Iris V. Cully, *Children in the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p.56.

인 역사하심을 항상 중시하여야 한다. 기독교 교육자들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연구 때문에, 아동들이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분별있는 기독교 교육자는 인간의 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피아제 Jean Piaget의 연구는 개념발달의 과정에 대한 많은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피아제는 지적하기를 아동은 단순한 반사장치 (reflex mechanisms) 이상의 지적인 능력은 전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유아의 지적발달은 반사장치를 자기의 경험에서 이용하여 분화 통합하는 점차적인 능력으로서 이루어진다. 새로이 들어오는 외적인 자료는 정신적인 능력(용량)을 확대함으로서 현존하는 내적인 자료와 통화되는 것이다. 대략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아동은 미래의 사건을 예기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상징적 표상 (symbolic representation)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 초기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유아는 그가 태어난 이 세계에 관한 아주 영향력있는 의식 (influential awarenesses)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이 초기 몇개월 안에는 아동은 시간이나, 공간, 거리 또는 관계의 뚜렷한 감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자기 환경과의 완만한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감각자료들을 현존하는 인상 (impressions)들과 계속적으로 동화시킴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아동의 경험구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자는 유아의 과업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 아동은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서 자신의 실재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인적인 실험과 부모, 기타 여러 사람들로부터 얻은 자료의 조각들을 취하여 아동은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성인들은 종종 아동기에 대해서 단순한 견해를 가져서 “그는 지금 놀고 있다”는 등, 아동초기의 인상이나 의식 (impressions and awareness)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 각각의 모든 사건은 아동의 실재의 세계가 확대되고 확인되는 학습의 시기이다.

이 기초적인 “출생에서부터 2세까지의 시기” 즉, 감각적 동작기 (sensormotor period) 뒤에 개념형성에 있어서 아동의 성숙 발달의 3시기가 있다. 피아제가 제시한 연령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기를 나눌 수 있다.

즉, 2세 — 7세 : 전개념기 (preconceptual period)

7세 — 11세 : 구체적개념기 (period of concrete concepts)

11세 — 15세 : 추상적개념기 (priod of abstract concepts)이다.

물론 이 구분은 엄격한 구분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개략적인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개념의 발달은 실제로 비조직에서 조직으로, 무형식에서 형식

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에로, 문자적인 것에서 상징적인 것에로 이해해가는 점진적인 발달이다.

1) 전개념기 (preconceptual period)

2세부터 7세까지를 전개념기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아동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는 자기의 세계를 탐구하는데 가치있는 도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제 행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설명을 추구할 수 있다. 언어능력 (language ability)은 사상을 탐사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부모들은 종종 학령전의 자녀들이 해대는 끈질긴 질문에 압도당해 버리는 수가 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디에 사시느냐?”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등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한다. 3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세와 5세의 아동들이 다른 어떤 연령집단보다도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질문하더라고 밝혀 주고 있다.⁸⁾ 아동의 이와 같은 탐구에 인내심있게 반응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아동에게 지식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의 관계화립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시기 아동의 사고과정에 있어서 몇가지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은 부모나 교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1) 먼저, 이 시기 아동은 시간 (time)이나, 거리 (distance), 수 (numbers), 역 (reversibility)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 따라서 아동은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 아동에게 예수님께서 2,000여년 전에 이땅에 살아계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비록 5세된 아동이 자기가 5살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자기가 가르침받은 정보 (information)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5라는 수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아주 짧은 시간의 길이, 말하자면 30분과 같은 시간도 이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시기의 어린 아동은 오히려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시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이 접시 씻는 일을 마친 후에 너를 데리고 밖에 나갈께”와 같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시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거리나 수의 개념들은 그 개념들이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측정치로 바꾸어지지 않는 한 이들에게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자료 (data)를 이들에게 제시할 때에는 어떤 구체적인 수를 지적하기보다는 “거기에 많고 많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8) Alice L. Goddard, "Children Ask About God,"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0(Jan., 1964): 20.

를 듣고 있었어요”라는 말로 표현하여야 한다.

(2) 둘째로, 이 시기를 통해서 아동의 전 개념적 사고는 평면적이고 단일적(transductive)이다. 다음 그림을 참조해 보자.

(그림 2) 전개념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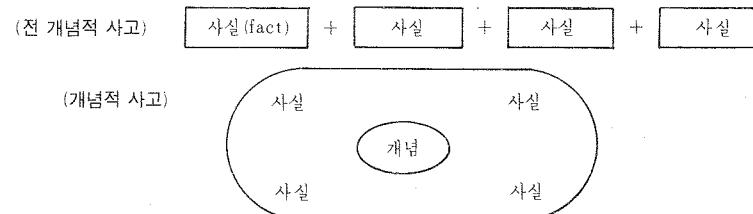


그림 2) 전개념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의 차이점

아동은 1대 1의 바탕위에 관념들을 관계지우는 경향이 있다. 그는 정신적인 비교를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번에 그것을 구성해야만 한다. 아동은 아이디어들을 함께 그룹지울 수 없으며, 또한 핵심되는 원리를 도출할 수 없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제한된 개념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이 분리되어 취급되어야 한다.

이제 이 시기의 아동의 성경교수에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의 아동이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대하여 아동이 나타내 보이는 반응에다 평면적이고 단일적인 사고(transductive thinking)의 한 중요한 적용을 촍점 맞추어 보자. 이 전개념기에 속하는 아동들은 자기가 학습한 것을 일반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제상황에 특별히 적용시켜 주지 않으면 안된다. 게리슨 Garrison은 그의 교육심리학 (Educational Psycholog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동들에게 있어서 정직이라는 개념의 형성을 살펴 본 한 연구는, 어린 아동들은 구체적인 상황안에서의 도덕적인 행동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나중 정직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통합되어 나간다”고 말하고 있다.⁹⁾

평면적이고 단일적 사고(transductive thinking)의 이와같은 제한점은 아동이 신학적인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어떤 관계를 갖거나 영향을 미친다. 이와같은 사고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아동은 자신이 배운 단편 단편적인 정보(지식)들을 예수 그리스도, 죽음 또는 죄등에 관한 어떤 종체적인 개념으로 통합해 나가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다. 아동이 성장발달하여, 4—6세의 아동후기가 되면 자기의 지적인 경험을 일반화하고 개념의 위계조직

(conceptual hierarchy)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나 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광범위한 측도 위에서 관념이나 전개념을 동화시킬 수 있는 점차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

부모나 교사들은 종종 이 시기의 아동이 개념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다.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다”든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안계시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위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 등과 같은 말들을 듣는다. 그러나 아동은 이와 같은 지식들(단편적인 정보들)을 하나의 의미있는 통일된 전체로 통합하고 촍점 맞추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앞서 교사가 들려준 그와같은 말들은 아동에게 서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으며, 심지어는 바로 앞뒤에 한 말들이 이들에게는 상호보순되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3) 세째로, 이 전개념시기 아동의 사고특징은 혼합주의(syncretism)이다. 혼합주의란 상충하는 제신념,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이나 운동 또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나로 조화시키거나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혼합주의적 사고(syncretistic thinking)는 함께 속하지 못하는 항목이나 사건 또는 경험들을 연결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이것은 일면, 아동이 많은 관계들을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수산(Susan)이라는 애가 젠킨스(Jenkins)아저씨에게 물기를 “아저씨 어머니 어디갔어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보니 이 애는 실제로 젠킨스씨의 부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 애에게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의 개념이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아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ideas)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들과 관계지울 수 있는 것이다.

(4) 네째로, 이 시기 아동의 또 하나의 사고특징은 주의집중 (centering)이다. 주의집중이란 아동이 자기의 주의를 어떤 관념이나 경험이 갖고 있는 어느 한 특징 또는 특색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다른 여타의 중요한 면들을 보지 못하는 경향을 말한다. 때문에 이 시기의 어린 아동들은 교사가 들려주는 성경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어떤 한 측면에만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면들을 놓쳐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아동들은 한 사건의 범위(scope)나 형태(pattern)를 보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시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장면을 시청각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고마 존니(Johnny)는 예수님의 타고 계시는 그 당나귀에 그만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교사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해 주는 다른 설명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수가 많은 것이다.

9) Garrison, p.294.

(5) 다섯째로, 이 시기 아동의 사고특징은 인위적(*artificial*) 또는 인간적(*humanistic*)이다. 다시말해서, 이 시기 아동은 이 자연세계의 사건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이 비치거나 구름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너무 고도로 상상적이기 때문에 이 시기 아동은 실제의 세계와 가공의 세계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아동의 전개념은 아주 조잡하게(*poorly*) 관계지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아동의 환상의 세계를 반영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의 설명은 인위적 특징(*artificialism*)이 아동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 조그만 소년이 자기의 전포도를 먹고 있었다. 그날 밤은 천둥이 치고 있었다. 이 소년은 파자마를 입은 채로 전포도를 들고 아랫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두려워 했던 것이다.”¹⁰⁾

(6) 여섯째로, 이 시기 아동의 사고 특징은 자기중심적(*egocentric*)이다. 이 아동의 자기 중심주의라는 것은 성인의 이기주의와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아동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이나, 사건, 경험들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은 이유때문에 아동에게 무엇을 공유한 다던가 나눈다(*sharing*)는 개념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한 다른 애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알도록 아동을 도와주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2세—7세되는 아동의 사고능력에서 나타나는 이와같은 제한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요점은, 부모나 교사들이 이 시기 아동들에게 너무 지나친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해서, 아동은 이 전개념기를 통하여 신학적인 개념을 발달시키거나 관계지우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물론 이 시기 아동들도 관념(*image*)이나 전개념(*preconcept*)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사고는 단편적이며 분리된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의 지적인 능력은 모든 관계지식(정보)들을 함께 결합시키기에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두번째의 요점은 아동이 배우는 성경지식(정보)은 정확하여야 하며 또한 아동의 이해 수준에로 낮추어 제시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린 아동의 사고가 갖고 있는 이와같은 여러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교

10) Klink, p.46.

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리차드 Richards에 의하면, “학령전 아동의 기독교 교육에 우리가 어떠한 접근을 취한다 해도 학습의 출발점에서 아동에게 이해할 수 있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¹¹⁾

성경의 여러가지 사건이나 진리에 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의식(*awareness*)를 갖게 해 주는 것도 놀라운 시간이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실재를 표현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어린 아동은 하나님이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실제하는 분(*a real person*)이시며 능력이 많고, 자비하시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며, 자기의 가족과 이웃들을 돌보는 실재하는 분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 함축적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즉, 아동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의 행동을 통하여 표현하는 타인을 관찰함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전개념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묻는 아동들의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의 행위(행동)과 관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person*)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탐구하는 아동의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5세의 소녀가 어머니에게 물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 보시지요. 어머니! 안그래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헤치도록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였다. 이 아동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찾고(탐구하고) 있는 것이다.¹²⁾

2) 구체적 개념기(*concrete concepts period*)

7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들은 문자적(*litical*)이거나 구체적(*concrete*)인 용어로 사고하기 시작한다. 전 개념기에서 구체적 개념기으로의 이행은 지각작용(*perceptions*)에서부터 지적조작(*intellectual operations*)으로의 이동이다. 이 발달의 정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개념화의 형태(*a form of conceptualization*)가 가능한 시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발달과 함께 동반되는 제한점은 또한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 시기 아동은 자기의 언어적인 추리(*verbal reasoning*)에 제한되어 있다. 아동에게 대상(*object*)보다는 언어적인 명제(*verbal propositions*)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면 아동은 명제를 추론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술을 철저하

11) Lawrence O. Richards, *Creative Bible Teaching* (Chicago: Moody, 1970), p.150

12) Mary E. Venable, “Little Children Ask Big Ques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0(Oct., 1963): 4-6.

게 생각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념이 보다 더 추상적이 되어짐에 따라 신학적인 개념을 조정하는 능력이 아주 어려워진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제한과 관계하여, 7세에서 11세 아동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실례들을 넘어서서 그것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 아동의 지적 능력은 자신이 내면화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행위(physical actions)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의 신학적인 개념의 이해도 자기 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지식을 일반화하는데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연령 집단의 아동들은 삼위일체의 개념과 씨름을 한다. 그러나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인 믿음과 그 진리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주의깊게 구별하여야 한다. 성인들은 종종 아동이 말로써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아동의 반응 그것이, 그 아동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동이 이미 획득한 사실로서 대답하는 아동의 능력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를 통한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의의깊은 발달은 자료(data)를 분류하는 아동의 능력이 확대되어 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학적인 개념형성을 향한 의의깊은 발전이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범주지우고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관계를 그룹지우는 아동의 능력이 더욱 더 발달해감에 따라 개념을 형성하는 아동의 능력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이다.

아동이 지식(정보)를 그룹지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주목할만한 특색이 나타난다. 즉 약 9세경이면 아동들은 등급(classes)이나 관계들의 위계조직(hierarchy)을 발전시킴에 훨씬 더 유능하게 되어진다. 예를 들어, 이제 아동은 소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등과 같이 성경의 구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 시작한다. 성장함에 따라 아동은 두번째 바울서신과 같이 분류를 증식하는 일에 익숙하게 된다.

무엇을 그룹지우는 능력은 두가지 이유에서 개념형성에 대단히 귀중하다. 첫째는, 아동은 그 구체적인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어떤 특정한 관계를 따라서 자료가 분류될 수 있으면 그것은 보다 쉽게 범주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무엇을 제외시켜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식은 내가 그 문제에 관해서 알고 있는 다른

사실들과 일치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분류작용(classifying operations)은 개념형성에 필요하다. 그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자식)를 결합(combining information), (2) 구분 또는 분리(distinguishing or separating), (3) 정보를 하위 그룹으로 구분(dividing information into subgroupings), (4) 질서를 세워 조직(organizing by placing in order), (5) 대치(substituting), 그리고 (6) 반복(repeating)이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공통되는 관계를 발견하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요소 또는 동일성의 원리를 발견하여 자기의 확대되어 나가는 학습의 저수지를 견고히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기술은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 및 기타의 교리적인 개념들의 전전한 발달을 위한 바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7세—11세 시기의 아동의 사고에 있어서 한 중요한 제한점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념화의 능력은 구체적인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를 등급지우고, 정보를 분류하는 것은 7세—11세 아동이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분류되어 있는 각 권의 분류에 대한 이해는 아동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예시되어 있고 종이에 각자가 또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분류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좌와 같은 신학적인 개념을 파악한다는 것은 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다 더 추상적이고 또한 보다 덜 분명하고 덜 구체적인 바탕위에서 끌어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3) 추상적 개념기(abstact concepts period)

11세에서 14세까지의 4년 기간을 통해서 아동의 지적 능력은 보다 성숙된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발달한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명제의 세계(the world of propositions)를 이용하고 추상적인 용어로서 사고하는 능력이다.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덧붙여,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던 분류의 능력이 보다 세련되고 더 잘 통합되며, 보다 융통성있게 되어간다. 7세—11세 아동이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몰두하는 반면 11세—14세의 아동은 신학적이고 원시적(remote)이며 미래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시기는 신학적 개념의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첫째로, 좀 나이가 든 아이들은 자기의 초기의 학습을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추상적인 원리와 개념에로 통합해 갈려고 노력한다. 부모나 교사들은 11세—14세

의 아동들에게 반성적(reflective)이기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은 유형적이고 한정적이며, 친숙한 것을 넘어 가설적인 상황과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나아간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기독교 생활을 위한 성경적 기초의 형성에 중대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4. 성인들은 아동의 신학적 개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How adults can discover children's theological concepts?)

불행히도, 대다수의 성인들은 자기가 아동이었던 이전의 기억을 잊어버린다. 성인들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오기 몇주간 전부터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고대하며, 나무아래 갖다 놓는 신비스런 선물을 기다리고 경험하는 아동의 강력한 감정을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다. 성인들은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되풀이해 물어야 해던 그 불분명했던 단어나 사상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한다. 친자(親子)관계와 아동교육의 기본적인 과제는 아동의 세계를 재 발견하는 것이다. 그때에만 성인은 아동들이 행하는 것의 의미와 나아가 아동을 통찰애로 인도하는 혁명한 행위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세계를 재발견함에 있어서 성인은 기독교진리를 관계되는 아동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업을 소홀히 취급해 버리는 교사는 흔히 아동에게 아동이 나타낼 수 있는 것 이상의 과중한 것을 요구한다. 아동이 성인과 같이 지각하고 생각한다는 가정아래 성인의 관점에서 이 세계가 아동에게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 생명의 양식, 길이요 진리, 생명등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아동들이 파악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개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부모나 교사들은 이와 같은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서 아동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어떤 특정의 아동기에서 보여주는 아동의 지적, 정서적, 영적인 특성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보다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아동이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통찰력은 여러가지의 다양한 장면 가운데서 아동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을 통하여 고양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실제적인 생활 장면 가운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고 세계를 이해하고자 원하는 성인들은 대화를 듣는데 훈련되고 날카로운 지각의 기술을 개발시켜야 한다. 우리는 아동들이 선택하는 단어를 주시해 보아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가, 성경구절을 어떻게 따라 하는가? 성경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관찰해 보

는 것도 좋다. 아동이 어떤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에 우리가 귀를 기울임으로서 우리는 아동이 성경진리를 이해하는 정도를 보다 충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들에게 “왜?”라고 질문을 던져본 성인들은 아마도 “왜냐하면”, 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동은 원인을 추리해 내는 지적인 성숙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대답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날카로운 지각을 갖고 들을 뿐만 아니라 성인은 또한 아동과 더불어 비공식적인 다정한 장면(분위기)속에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해 보아야 한다. 8세의 아동에게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아동이 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나를 알게 되어진다. 아동의 신학적 개념을 발견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 즉, “너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말해 보렴!” “예수님은 누구시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와 같은 질문들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아동들이 거듭남, 복음, 마음, 사랑, 나눔, 기도와 같은 개념들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 대화의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때 성인들은 개개 아동의 이해 범위를 알게 될 것이다. 더욱 많은 아동들을 상대로 질문을 던져 보면 볼수록 우리는 아동들의 연령별 수준에서의 신학적 개념의 이해능력을 더욱 잘 일반화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너무 소규모 집단의 아동들로부터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소학급 국민학교에 있는 아동들과의 대화로서 국민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동전체의 신학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 한 이유로서 어떤 학급에서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의식적인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는 기독교 가정의 아동일 수도 있고, 다른 학급에서는 상당수의 아동들이 기독교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아동집단일 수도 있다. 이 때 그 결과는 엄청나게 상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위험성은 성인들이 아동의 능숙한 대답을 통찰과 이해의 증거로서 귀결지을 때 나타난다. 상호 관련성이 없는 성경적 사실들은 기독교적인 개념의 타당한 증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아동은 객관적 사실을 소유해야 하며, 그 의미를 배우고 나아가 이 사실들의 적용의미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아동의 신학적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아동들로 하여금 미술이나 음악, 극화(role play)등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종교적

아이디어들을 표현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아동은 종종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기술적(記述的)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때로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을 그리도록 요청받은 한 아동이 자동차의 뒷 좌석에 두 사람이 앉아있고 앞 좌석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이 무엇에 대한 그림이냐고 물어보니 그 아동은 대답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는 그림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아주 우습고 재미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에덴동산의 사건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생생하게 묘사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들은 아동이 소유하고 있는 바 성경적 아이디어에 대한 개념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아동이 그 발달단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지각할 줄 아는 부모와 교사만이 보다 성숙한 개념으로 아동을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 탐구를 통하여 성인들은 아동들 사이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개인차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5. 잘못된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How misconceptions occur?)

많은 아동들은 과다한 지적자극(intellectual overstimulation) 때문에 잘못된 교훈과 개념을 형성한다. 두 가지 원인(source)이 특별히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매스 미디어(mass media)로부터 오는 강력한 정보의 입력(input)이다. 아동의 정신은 그 자신이 아직 동화시킬 수 없는 관념과 사상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관념과 사상들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평면적이며 단일적으로 다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두 개의 상반되는 아이디어들이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과다한 지적자극의 또 다른 한 원인은 양(quantity)과 질(quality)을 혼동하는 소위 열심있는 부모와 교사들이다. 그래서 아동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성경 귀절들을 암송하도록 촉구 받으며, 그가 결코 해득할 수 없는 수 많은 사실과 사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아동 자신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차원높은 개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친송과 노래들을 배우게 된다. 아동은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도 추상적인 자료들을 제공받게 된다. 그 결과는 혼란과 오해(misconceptions)이다. 이 보다 훨씬 더 좋은 원리는 아동들이 전실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정보와 경험들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아동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아동이 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

기 전에 아동들에게 신학적 개념을 주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아동은 또한 그들 자신의 관찰과 추론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을 갖기도 한다. 데이빗드 럭셀 David H Russell은 말하기를 개념의 오류가 생기는 것은 “자신의 관찰과 개념적 사고의 결과에 대한 과신(overconfidence)” 때문이라고 하였다.¹³⁾ 아동은 성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인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동이 자기의 정보를 부정확하게 처리하거나 성인들로부터 잘못된 아이디어와 태도를 제공받는다고 한다면 그 아동은 성인의 지도가 없이는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개념의 오류는 또한 그 개념이 기초하고 있는 전개념(preconcepts)이 잘못되어 있을 때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아동기의 경험이 성경적 개념과 상반될 때 나타나기도 한다. 아주 잘못된 부자 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된 우리들과의 부자관계를 올바로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성경적 개념을 가르치면서 시청각 교제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도 아동은 잘못된 신학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한 유명한 성경 이야기 책은 사탄은 뿔이 있고, 꼬리가 달리고 갈퀴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이미지는 아동의 마음에 아주 지속적인 인상을 새기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시청각적인 그림때문에 천사를 양 날개가 달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정확한 것인가?

교사의 말(단어)을 정확하게 듣지 못함으로서 아동들은 개념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잘못 얻기도 한다. 이러한 일은 흔히 아동들의 노래에서 나타나는데 성인들의 잘못된 발음이나 합창, 반주등이 단어를 뚜렷하게 들리지 않게 하거나 왜곡시킬 때 나타난다. 한 어린이는 “Jesus loves me, the sign no.”(Jesus loves me, this I know의 잘못 들린 내용)가 무엇인지를 의아해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노래는 때로 신학적으로 혼돈되거나 지나치게 상징적인 경우가 있다. 교사들에게 매우 흥미있는 학습경험은 “주는 나의 배합화”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동에게 한번 물어 보는 일이다.

잘못된 신학적 개념은 또한 또래 친구들끼리의 대화 결과로서 형성되기도 한다. 아동들은 그들의 놀이 친구들, 특별히 자신들과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부정확한 인상이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만약 동료 아동들이 기독교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기독교적 주제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비진리로 아동을 인도하게 되고, 이

13) David H. Russell, *Children's Thinking* (Boston: Ginn, 1956), p.246.

- 아동은 그 지식을 쉽게 자신 속에 통합시키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아동의 신학적 개념은 너무도 쉽사리 잘못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들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 1) 아동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징적인 개념을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아동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나 교사 자신의 신학적 개념을 명료히 해야 한다.
 나는 성령에 관해서 무엇을 믿는가? 이 진리를 간결하면서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용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3) 언어와 경험, 그리고 경험과 언어를 서로 연관시켜야 한다. 이들은 상호 강화하며 명료화하는 일을 한다. 경험은 언어의 보다 깊은 의미를 표현 하며 언어는 경험을 명료화한다.
 - 4) 뒤에 잊어버려야 하거나 고쳐야 할 어떤 것은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
 - 5) 신학적 개념을 "죽은 지식"(inert ideas)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생활원리로서 가르쳐야 한다. 아동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개념을 그 자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를 수가 있다. 부모들은 기독교진리의 실재를 모범으로서 실천해 보여 줌으로서 아동을 도울 수 있다.
 - 6) 개념을 빨리, 그리고 많이 가르치기 보다는 풍부하게 해 주어야 한다. 백과사전식의 이해보다는 기본적인 진리에 대하여 보다 풍요한 의미를 갖도록 아동을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들어 우리는 아동들에게 생활상황이나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 성경이야기, 노래, 그림, 성경퀴질 등 많은 경로를 통해서 정직이라는 개념을 확립시켜 줄 수 있다.
 - 7) 한번에 하나의 개념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 8) 정보를 아동의 지적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 9) 정보(지식)를 아동의 경험과 통합시켜 줌으로서 아동이 그 정보(지식)의 의미를 스스로 테스트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도서)

- Almy, Millie C. *Young Children's Thinking : Studies of Some Aspects of Piaget Theory.* New York: Columbia U., Teachers College Press, 1966.
- Beadle, Muriel. *A Child's Mind.* Garden City, N.Y.: Doubleday, Anchor Books, 1971.
- Brearly, Molly, ed. *The Teaching of Young Children.* New York:

- Schocken, 1970.
- Eastman, Frances M. "Was Jesus Born Like Me?"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0(Dec., 1963): 16-17, 37.
- Eastman, Frances M. "What Is the Bible?"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1(Oct., 1964): 8-9, 38-39.
- Elkind, David. *Children and Adolescents : Interpretive Essays on Jean Piaget*, Paperback ed. New York: Oxford U., 1971.
- Elkind, David.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Understand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Research on Religious Development*. Ed. Merton P. Strommen. New York: Hawthorn, 1971.
- Goldman, Ronald. *Readiness for Religion.* New York: Seabury, 1986.
- Goldman, Ronald.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Seabury, 1964.
- Lichtenweiner, Muriel. "Children Ask about Death."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0(June, 1964): 14-16.
- McMichael, Anne. "As Children See the Church."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0(March, 1964): 10-11, 40.
- Phillips, John L., Jr. *Origins of Intellect : Piaget's Theory.* San Francisco: Freeman, 1969.
- Piaget, Jea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1954.
- Piaget, Jean.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1952.
- Venable, Mary E. "Little Children Ask Big Ques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0(Oct., 1963): 4-6.
- Venable, Mary E. "Religious Affect Daily Liv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0(July-Aug., 1964): 16-17, 37.